

## 전래의 속담에 나타난 한국인의 성개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 영 숙 · 이 근 후

= Abstract =

### The Concepts of Sexuality Presented through Korean Proverbs

Young Sook Park, Kun Hoo Rhee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d Korean concepts of sexuality presented through traditional proverb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st sexual concepts of Koreans. Out of 2,5000 proverbs, 456 of them are related to sexual concepts.

The analysed proverbs in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as follows.

First, sex has been classified as sex for reproduction among couples outside marriage so resulting in dualistic sexual concepts about sexual function.

Second, the pleasure seeking sexual activity resulted in conflict within the family so that this family conflict lead to the negative sexual concept as sex is dangerous and must be guarded.

Third, pleasure seeking sexual desire for male is regarded to be universal while for female is recognized as a peculiarity. Thus the biased concept of sexual desire has lead to more deep frustration among females.

### 서 론

속담은 오랜 세월동안 민중의 생활속에서 발생하고 구전되어 오면서 민중들의 경험과 지혜와 교훈에서 우러난 진리이다<sup>1)</sup>. 이와같은 속담의 정의에서 시사되는 점은 속담은 한 사회구성원들이 체험했던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그 사회구성원들의 공감을 기반으로 하여 존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속담에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체험했던 생활경험의 흔적과 그런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집단 공유의 사고 및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Jung<sup>2)</sup>이 지적한 집합의식, Kluckhohn<sup>3)</sup>에 의해 제안된 동일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적 행동경향성과 일치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자면 속담에는 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의식이나 행동특징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속담은 일상생활에서 일반대중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민속학적 자료보다 공감을 기초로 한 집단 공유의 집단의식을 발견하는데 적절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성(sexuality)이란 생식이나 성적 쾌락 추구와 직접 관련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넓게는 성적반응을 하는 인간으로서 갖는 감정과 행위전반을 의미한다<sup>4)</sup>. 성은 Freud의 성욕론 제기 이후, 인격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되었고, 성의 생물학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sup>5)</sup>. 즉 개인이 경험하는 성행위나 성개념에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속담에는 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의식 및 행동양식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성과 관련되는 한국인의 의식과 보편적인 행동양식을 속담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예견에 따라 본논문에서는 성욕이나 성행위 뿐만 아니라 성적 자아주체성, 성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 개념, 즉 넓은 의미의 성개념 또는 성의식을 속담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성은 생산적이고도 창조적인 자아성취를 위한 근원적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과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속담에 나타난 전통적인 한국인의 성개념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속담에는 무의식적 소망이 내포되어 있고<sup>7)</sup>, 이러한 소망에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므로<sup>8)</sup>, 성으로 부터 벗어난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시사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 연구 방법

한국 전래의 속담이 수록된 속담사전 가운데 「우리말 속담 큰 사전」<sup>9)</sup>을 선정하여 전체 2,5000개 속담 가운데 성의 주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속담 462개를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이 462개 속담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즉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속담을 동일 범주속에 포함시키면서 분류해 본 결과 대략 6개의 하위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1. 부부와 관련되는 속담 110개 2. 남성과 관

련되는 속담 35개 3. 여성과 관련되는 속담 155개 4. 성욕 및 성행위를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성의 주제와 관련되는 속담 89개 5. 축첩과 관련되는 속담 37개 6. 사별로 인한 독신남녀와 관련되는 속담 54개 7. 기타 주제의 속담 64개. 이러한 하위 주제의 선정과 분류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2인, 심리학자 1인이 독립적으로 1차 분류를 거친후 2, 3차 토론을 하며 일치점에 도달함으로써 논리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인이상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하위 주제의 선정 및 분류에 관한 의견이 수용되었다. 따라서 본연구방식은 논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하위 주제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결 과

### 1. 부부와 관련되는 속담

부부의 주제와 관련되는 속담이 표 1에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집안화목에 있어서 현명한 부인의 역할을 강조한 속담이 19.0%, 남편의 주도권, 부인의 순응태도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중요시한 속담이 13.1%이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정의 중요성(9.8%), 부부의 백년해로 및 일부일체제의 준수(9.2%), 부인에 대한 자량이나 애정표현의 급기(7.8%), 유순하고 말없고 투기없고 살림 잘하는 부인 역할의 중요성(7.8%)이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표 1. 부부의 주제와 관련되는 속담

속 담 내 용	빈 도	백분율
좋은 아내가 집안 화목에 중요(악처는 패가망신)	29	19.0
남편의 주도권, 아내의 순응(부창부수)	20	13.1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정의 가장 중요	15	9.8
부부의 백년해로 및 일부일체제 준수	14	9.2
아내의 자량은 팔불출	12	7.8
집안이 잘되는 조건(아내의 운순, 비투기, 과묵)	12	7.8
결혼은 연분	10	6.5
악처라도 필요	9	5.9
처가살이의 어려움	8	5.2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8	5.2
기타(결혼은 만대의 시초, 부부도 돌아서면 남)	16	10.4
총 계	153	99.9

결혼은 연분(6.5%), 약처라도 부인의 중요성(5.9%), 처가살이의 어려움(5.2%),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5.2%), 그리고 기타의 내용(10.4%)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같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족화목을 위한 부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 부부의 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회피되고 있다.

### 2. 남성과 관련되는 속담

이 주제의 속담이 표 2에 제시되고 있는데, 량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빈약하며 주로 이상적인 남성상이 부각되고 있다(51.4%). 이상적인 남성의 특성으로는 신중함, 일관된 말, 배짱과 의리, 지식, 풍채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역할에의 개입은 금기시되고 있다(8.6%). 「변덕스런 남성의 마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8.6%) 대체로는 이상적 남성상과 남성의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이 앓으면 패가(5.7%), 기타의 내용(양기가 원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25.7%).

표 2. 남성의 주제와 관련되는 속담

속담내용	빈도	백분율
이상적 남성특징(신중함, 일관된말, 배짱과 의리, 지식, 풍채)	18	51.4
여성 역할에 관여 금기	3	8.6
남성의 변덕	3	8.6
남성이 앓으면 집안 망함	2	5.7
기타(양기가 원기, 상처한 남자)	2	25.7
총 계	35	100.0

### 3. 여성과 관련되는 속담

이 주제의 속담이 표 3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풍부하고 부정적이다. 여성의 속성은 원한이 깊고, 심술과 투기가 심하고, 말이 많고, 변덕스럽고,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품고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37.4%).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 억제되어야 하며(16.1%), 30세 이후의 여성은 여성의 나이로서는 환갑이며, 성적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며(10.3%), 여성은 쉽게 상처 받고(9.7%), 여성의 운명은 남성에게 달려있으며(9.7%), 여성을 때로 다스려져야 함이 제안되고 있다(7.1%).

이와같은 여성의 부정적 속성이 열거되면서, 이러한 여성의 속성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능동적 여성의 역할은 가사업무에 제한되어야 하며, 여성이 가치있는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연령의 한계로는 삼십세가 제시되고 있다.

### 4. 성과 관련되는 속담

협의의 성의 주제와 관련되는 속담이 표 4에 기술되고 있다. 첫번째는 남성이 색욕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경고가 53.9%이다. 「여색은 패가 망신, 병치레, 근심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두번째는 남성은 누구든지 여성을 좋아함이 지적되고(14.6%), 세번째는 여성의 혼외의 성이 주목되고 있다(13.5%). 여성의 성적 외도는 「훗김에 서방질, 「화냥끼」에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일부 여성만이 일시적인 감정의 방출 수단으로써 혼외의 성을 경험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호색의 신체적 특징(4.5%), 색에는 귀천이 없고 나이가 들어야 하며

표 3. 여성과 관련되는 속담

속 담 내 용	빈 도	백분율
여성의 본성(원한, 심술, 질투, 수다, 변덕, 생각이 많음, 젊어서 여우, 늙어 호랑이)	58	37.4
여성의 금기(주도권 금기, 고집, 수다, 지식)	25	16.1
여성은 젊어서 환절(여성의 나이 삼십세가 환갑)	16	10.3
여성은 쉽게 상처받음	15	9.7
여성의 팔자는 남성에 의해 좌우됨	15	9.7
여성은 때로 다스림	11	7.1
이상적 여성상(살림, 덕, 외모)	4	2.6
기타(여자 말 들으면 패가망신, 여성은 사랑해야 함)	11	7.1
총 계	140	100.0

표 4. 성과 관련되는 속담

속 담 내 용	빈도	백분율
여색은 위험, 경계해야함	48	53.9
남성은 누구든 여색을 좋아함	13	14.6
여성의 혼외의 성(훗김에 서방질, 화냥끼)	14	13.5
호색의 신체특징(털, 가는목, 눈)	4	4.5
색에는 귀천없고 나이 들어야 함	3	3.4
기타(양기가 왕성, 사윗감의 코, 가난한자의 식색)	9	10.1
총 계	89	100.0

(34%), 남성에게는 양기가 원기이고, 사윗감은 코를 보고 선택하며, 가난한 자는 식색으로 산다(10.1%)에서 성의 중요성이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다.

속담에서 성은 주로 「여색, 주색, 호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은 부부관계에서의 성이 아닌, 부부관계외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호색, 즉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같이 성은 주로 쾌락적인 혼외의 성이 강조되고 위험시되면서, 이러한 성에 대한 통제와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쾌락적 성욕 억제가 충고되고 있다. 이러한 쾌락추구적 성욕은 남성에게는 보편적인 행동으로써 인정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특수한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과 남성의 성욕은 원래부터 차이가 있으며, 여성에게는 쾌락추구적 성욕이 존재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한 여성의 일탈적인 성욕이나 성행위에 대한 엄격한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이와같이 쾌락추구적 혼외의 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부부관계의 성은 앞서 지적된 바와같이 거의 언급되고 있지않고, 부부관계에서는 집안화목을 위한 부인의 역할이나 순종적인 부덕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쾌락추구적 성이 부부관계에서 보다 혼외관계를 통하여 충족되고 있는 반면 부부관계의 성은 출산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5. 축첩과 관련되는 속담

축첩과 관련되는 속담은 표 5에 제시되고 있다. 이 속담 가운데 축첩으로 인한 가정불화, 투기의 내용이 48.6%로 가장 높고, 경제적 이득에 따라 변심하는 축실의 이기성이 그 다음으로 지적되고 있다(27.0%).

표 5. 축첩과 관련되는 내용

속 담 내 용	빈도	백분율
축첩으로 인한 가정불화, 질투	18	48.6
첩의 이기적인 변심	10	27.0
늠으면 축첩자는 버림받음	4	10.8
축첩자의 믿을 수 없는 마음	4	10.8
기타(머느리의 시앗)	1	2.7
총 계	37	99.9

표 6. 사별로 인한 독신자와 관련되는 속담

속 담 내 용	빈도	백분율
과부의 성적 불만	22	40.7
과부에 대한 괘시	14	25.9
과부의 근면성	7	13.0
과부의 일상적 문제	7	13.0
홀아비의 특성(나태함)	4	7.4
총 계	54	100.0

표 7. 기타의 내용

속 담 내 용	빈도	백분율
미인과 연관된 내용(미인박명, 기구한 팔자, 소박, 남성의 유혹)	26	40.6
애정으로 인한 이성의 흐려짐, 이별의 고통	15	23.4
성적대상이 되는 여성(노류장화 여종)	12	18.8
연정(꽃 본 나비)	11	17.2
총 계	64	100.0

그리고 양가문한 남성의 신뢰도 결여(10.8%), 이러한 남성의 노후의 유기(10.8%)가 경고되고 있다. 기타의 내용에서 「머느리 시앗은 믿지 않다」는 내용에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여성의 입장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차이가 있음이 주목된다.

6. 사별로 인한 독신 남녀와 관련되는 속담

표 6에 이 주제의 속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여성 독신자의 성적 불만이 부각되고(40.7%), 남성 독신자의 경우는 성적 불만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외에는 여성 독신자에 대한 멸시적 태도(25.9%), 여성독신자의 근면성(13.0%), 여성 독신자의 일상적 문제점(13.0%), 남성 독신자의 나태성(7.4%)이 지적

되고 있다.

### 7. 기타의 내용과 관련되는 속담

표 7에서 보면, 기구한 운명이나 남성의 성적 유희(40.6%), 애정으로 인한 이성의 약화등 부정적 결과(23.4%), 그리고 성의 대상으로서는 직업적 윤락여성, 여비가 지적되고 있다(18.8%). 그리고 젊은 남녀의 연정은 자연의 감정으로 언급되고 있으나(17.2%) 그러한 언급에 성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논 의

속담에 나타나고 있는 성과 관련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한 부인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부부의 애정 표현은 억제되고 있고, 부부관계에서의 성은 거의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혼외관계에서의 쾌락추구적 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성의 쾌락기능과 생식기능의 이원화현상이 이러한 속담 내용에서 시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재되고 있는 이원화된 성의식, 즉 쾌락적 성과 생식적 성에 대한 분리를 암시해주고 있다.

둘째 쾌락추구적 성이 남성에게는 보편적인 성향으로서 성의 이원화현상은 보편화되었고, 이로 인한 가정불화는 성이란 위험한 것, 경계하고 억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성개념을 야기시켰다고 사료된다.

셋째, 쾌락추구적인 성욕이 남성에게는 보편적인 성향으로 인정되지만, 여성에게는 특수성으로 간주됨으로써 남·녀의 성욕에 대한 편파적인 개념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중적인 남녀의 성욕 개념 형성 결과, 여성에게는 성적 금욕이 당연시되고, 이로 인하여 기혼 여성이나 사별로 인한 독신여성의 성적 좌절은 심화되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선행 연구들을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성의 생식기능만이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김명자(1985)는 무속신앙에서 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신격화되고 추앙되고 이와같은 性神信仰은 祈子, 생산의 풍요가 그 목적이었음을 제시하였다<sup>10)</sup>. 또한 한국의 유교적 사상에서는 생산을 목적으로 한 성욕만이 올바른 행위이며<sup>11)</sup>, 그외의 성욕은 인욕으로 간주되었다<sup>12)</sup>. 이와같은 생식기능의 절대화는 한국 가부장제의 장자상속과 깊은 관계가 있다<sup>13)</sup>. 한

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부계부권가족제로서 장자에 의한 가계존속이 가족제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부부 결합은 자녀 특히 남아 출산의 수단이었다.

한편 이와같은 남아출산을 위한 성의 생식기능이 절대시되고 부부 성관계의 목표로서 설정된 반면, 남성에게만은 성의 쾌락이 보편성으로 인정되고 혼외관계에서 충족되어져 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같은 성의 이원화현상이 보편화되었다는 증거로써는, 고려시대의 관기의 등장, 관료들의 鄉妻풍조, 상하 관료들의 여악풍류 탐닉, 조선조시대의 다처금지와 처첩분한법의 설정, 그러나 실질적인 처첩제도의 존속이 지적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처첩제는 자녀나 아들이 없는 경우 가계존속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이광규(1975)는 쾌락추구 목적의 일부다처혼이 과거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고, 사회적 지위의 표시로까지 여겨져왔음을 지적하였다<sup>15)</sup>. 이와같이 사회적 성취를 이룬 지배계층에서는 쾌락추구적 일부다처혼이 보편화되고, 고려말 조선조 초기의 유교 도입에 따른 도덕·규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혼은 존속되면서 성의 생식과 쾌락기능의 이원화를 가능케 하였다고 사료된다.

이와같은 성기능의 이원화가 발생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성관계의 지상 목표는 가계전승을 위한 남아출산이었으므로, 부부관계의 성이 일종의 의무나 과제로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유추된다. 특히 전통적인 혼외과정에서부터 가족생활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개인들의 의사나 정서는 무시된 채 가족의 결정에 순응했던 점, 부부 생활공간의 분리, 엄격한 역할의 분리가 부부 성관계의 의무화를 촉진시킨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sup>16)</sup>.

둘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유별, 내외법, 남존여비 사상이 확고해지면서, 부부간의 엄격한 예의 및 거리감 유지가 요구되었고, 성관계에서도 예의는 지켜져야 했다<sup>11)</sup>. 또한 부부사이의 애정표현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sup>16)</sup>. 이러한 유교사상의 강화로, 부부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고 엄격한 예의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모자관계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쳤던것으로 고찰된다. 이광규(1985)는 한국적 부계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부친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모친을 중심으로 한 애정구조의 조화와 균형을 제시하면서, 모자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sup>17)</sup>.

다른 선행연구들 역시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모자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sup>18)19)20)21)</sup>. 또한 아들은 모친에게 있어서 부계가족내에서 정식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부부관계 및 다른 가족원과의 정서적 완충제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모친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유일한 수단이었다<sup>22)</sup>. 따라서 대략 5세를 전후하여 부친과의 접촉이 빈번해짐에도 불구하고, 모자관계의 밀착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sup>15)</sup>. Stoller(1971)는 지나치게 아들을 사랑하는 모친은 아들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의 남성적 자아주체성 발달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제안하였다<sup>23)</sup>. 또한 Greenson(1968)은 초기 모자관계의 밀착성 때문에 남아에게 여성 동일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sup>24)</sup>. 이러한 연구들은 남아 자신의 리비도적 갈망에 의한 혼모적 의욕을 강조했던 Freud(1924)의 에디푸스 콤플렉스이론<sup>25)</sup>과는 다르게 모친 자신의 정서적 욕구에 따라 모자관계의 밀착성이 유지되고, 분리-개별화 과정이 지연됨으로써, 남아의 성적 주체성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Stoller<sup>23)</sup>는 밀착된 모자관계가 모친 자신의 성격요인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고찰된 바와 같이 전통적 한국가족관계내에서는 가족구조의 산물으로써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여진다. 한동세(1970)는 이러한 한국 가족내 모자관계의 밀착성 때문에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통찰한 바 있으며<sup>20)</sup>, 이러한 모자관계의 밀착성이 고부관계 갈등의 결정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7)</sup>. 이부영(1988)은 이러한 결과 모성콤플렉스가 남성에게 형성되고 남성의 권위의식의 이면에는 여성에 대한 의존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한편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따라, 아동기의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해결에 따라 결정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sup>27)28)</sup>.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감정양식이 일생동안 지속되고 성인의 적응과 대인관계 경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sup>24)30)</sup>을 보다 확고히 해주고 있으며, 앞서 지적된 한국 가족내 모자관계의 밀착이 성인기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시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부장제 가족내에서 성의 생식기능의 절대화로 인한 부부성관계의 의무화, 유교사상 확립 이후 남존여비 관점으로 인한 부부 성관계의 엄격화, 모친 자신의 정서적 동기에 의한 모자관계의 밀착이

후기 성인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이 가운데서 모자관계의 밀착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앞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남존여비사상이 뿌리깊은 한국 가족내에서 여성의 종속적인 위치, 운명을 감수하는 여성의 한을 강조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sup>31)</sup>,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가 낮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남존여비사상은 유교적 영향이며, 원래는 여성의 지위가 낮지 않고 가산상속에서 남녀균등한 전통이 있으며<sup>32)</sup>, 한국 여성의 주부권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강하며 내주장이 강화될 여지가 높았다는<sup>15)</sup> 긍정적인 시각도 있으므로, 모자관계의 성질, 이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는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사려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개념의 이원화나 이중적인 성적 추구 결과, 부정적인 가정 불화가 야기되었고, 이는 원래적인 유교적 금욕적 태도에 더하여 성이란 위험하고 경계해야한다는 부정적인 성개념을 형성시켰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중적인 남녀 성욕에 대한 개념은 여성의 정절의 절대화, 이혼 및 재가의 금지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하여 여성의 성적 좌절은 심화되었다고 사려된다.

## 결 론

전래의 속담에 나타난 한국인의 전통적 성개념을 탐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정리될 수 있었다.

- 1) 성의 생식과 쾌락 기능이 분리되고 성기능에 대한 이원화된 개념 및 태도가 형성되었다.
- 2) 이러한 이원적 성개념과 성행위로 빚어진 부작용으로써 성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성에 대한 억압이 촉구되었다.
- 3) 쾌락적인 성욕에 있어서 남녀에 대한 편차적인 태도로 인하여 남녀 성욕에 대한 이중적인 성개념이 형성되었다. 즉 쾌락적인 성욕이 남성에게는 보편적인 경향성으로, 여성에게는 특수한 성향으로 간주되고, 이로 인하여 편파적인 성개념이 형성되었고, 이는 여성의 성적 좌절을 심화시켰다.

## References

- 1) 이기문 : 속담사전. 서울, 일조각, 1962 : pp7-12

- 2) Jung CG : *Two essays on analytic psychology. In The collective works of CG Jung. Read H, Fordham M, Adler G(eds), London, Great Britan, 1977 : p145*
- 3) Kluckhohn C, Murray HA :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 In Cultrue, behavior, and persoanlit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3 : pp22-39*
- 4) Haeberke EJ : *The sex atlas.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6 : pp126-7*
- 5) Shorter E :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York, Basic Books, 1977 : pp45-6*
- 6) Kolb LC,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Philadelphia, W.B. Saunders, 1982 : pp168-9*
- 7) Freud S :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 of Sigmund Freud. vol 5, London, Hogarth press, 1900 : pp 345-51*
- 8) Brenner C : *An elementary textbook of psychoanalysis. New York, Anchor press, 1955 : pp193-237*
- 9) 송재선 : 우리말 속담 큰 사전 서울, 서문당 1983 : pp 1-563
- 10) 김명자 : 민속에 있어서 성의 의미. 정신건강연구 1985 : 3 : 34-46
- 11) 최근덕 : 유교와 성. 정신건강연구 1985 : 3 : 34-46
- 12) 차재호 : 한국인의 성격.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pp112-143
- 13) 김두헌 :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 pp218-240
- 14) 김용숙 : 한국여속사. 한국문화사대계, IV. 고대민족 문화연구회 1972 : pp220-240
- 15) 이광규 :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1975 : pp113-7
- 16) 이홍우 · 이계학 · 박재문 · 유한구 · 황인창 · 김안중 · 장성모 : 한국적 사고의 유형.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pp44-59
- 17) 이광규 : 변동사회와 한국인의 갈등. 서울, 문학예술사 1985 : pp72-92
- 18) 조두영 : 효자효녀전에 있어서 효의 정신분석. 서울 의대잡지 1976 : 17(2) : 119-28
- 19) 민병근 : 한국 문화의 특성이 정신장애에 미치는 영향. 현대의학 1966 : 4(5) : 519-553
- 20) 한동세 : 한국인의 성도착증. 신경정신의학, 1970 : 9 (1) : 25-33
- 21) 조혜정 : 전통적 경험 세계와 여성.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pp93-140
- 22) 권정화 : 한국 도시중산층 부부의 에디푸스 콤플렉스. 이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 pp43-54
- 23) Stoller RJ : *The impact of new advance in sex research on psychoanalytic theory. Am J Psychiatry 1973 : 130 (3) : 241-251*
- 24) Greenson RR : *Disidentification from mother. Int J Psychoanal, 1968 : 370-4*
- 25) Freud S : *The ego, id and other works,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9, London, Hogarth press, 1924 : pp173-182*
- 26) 이부영 : 한국인의 성격.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pp5-60
- 27) 연구월 · 이근후 : 성적 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의대지 1988 : 11(3) : 153-160
- 28) 권정화 · 이근후 : 한국 도시중산층 부부의 에디푸스 콤플렉스. 이화의대지 1988 : 11(3) : 161-168
- 29) 이근후 : 한국인의 전통적 인간관계와 현대적 인간 관계. 도와 인간과학, 서울, 삼일당 1981 : pp103-116
- 30) Saul LJ :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New York, Nostr and Reinhold Company 1977 : pp3-15*
- 31) 이효재 : 여성과 사회, 정우사 1980 : pp54-101
- 32) 최재석 : 한국가족제도사. 한국문화사대계, IV.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회 1971 : pp423-530